



한인총회 총회장과 한인총회 임원들께,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교단 총회를 앞두고 인간의 성 정체성의 이유로 은혜로운 분리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과에 따라 교단을 분리해서 또 다른 감리교회를 모색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교단에 남아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인간의 성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한인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한 시기에 한인총회 내에 한인교회의 모임인 한교총이 한인총회의 연대 기관(Body)으로서 다른 연대기관 (여성목회자, 타인종 목회자, 차세대와 여성교회등)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교총은 총회(GC)의 결과에 따라 교단이 분리될 경우, 연합감리교회에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이 분리되어 한교총에 속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연합감리교 교단을 떠나게 될 경우, UMC 교단에 남아서 연대주의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통적인 신앙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가 연합하는 연대기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인총회의 임원진과 연대기관 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UMC 한인의 대표 코커스로서 한인총회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인총회와 함께하는 한인교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PSKUMC (Post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칭)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인총회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연대기관 협의회에 PSKUMC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어떠한 공식적 절차가 필요할 지 모르나 한인총회 이전 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PSKUMC를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연대기관 중 하나로 인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0년 5월 20일

PSKUMC 위원장: 안명훈 목사(아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PSKUMC 총무: 이용보 목사 (뉴욕한인교회)